

경합과 공조의 진정한 동반자, 예술과 사회 이론

배수을*

Art and Social Theory: Sociological Arguments in Aesthetics, by Austin Harrington,
Polity Press(2004).

『예술과 사회 이론: 사회학적 미학의 길잡이』, 정우진 역, 이학사(2014).

오늘날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에 기인한 연구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책은 예술과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의 핵심 견해에 의거하여 논지를 전개한다는 점, 고전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변화의 맥락과 사회 이론의 발전에 비추어 최근의 문제까지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책의 저자 오스틴 해링턴(Austin Harrington)은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 사회학과 교수이며 고전 사회 이론과 현대 사회 이론, 예술사회학, 종교사회학, 유럽 사상사 및 지성사 등의 사회학 분야 학문을 선도하고 있다. 역자 정우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대구카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미학회 산하 '예술과 사회' 분과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관련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예술과 사회 이론: 사회학적 미학의 길잡이』... 필자는 이 한 권의 책을 읽어가는데 지은이와 옮긴이의 인문학적 사유와 통찰력, 그 학문적 깊이에 도취되어 책을 쉬이 놓을 수가 없었다.

저자 해링턴은 저술한 책의 제목에 특별한 의미부여가 필요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이 책은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술사회학(the sociology of art)'과 같은 것을 언급하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설자는 이런 어구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예술의 사회학적 이해를 주관하는 단일한 학문 분야의 권위라는 생각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술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다. 미술사·문학 연구·문화연구와 같은 다른 학문 분야 안에서는 물론, 사회학이라는 제도 안에서도 예술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복수의 접근 방식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책에서 언급되는 모든 '예술들의 사회학' 또는 '예술의 사회학'은 정관사 없이 나타날 것이다 (p.11).

* 무용학 박사, 한국무용예술학회 이사, 단국대학교 강사, eul0715@hanmail.net

이러한 연유로 해링턴은 ‘예술사회학’이라는 표현보다 ‘예술과 사회 이론’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다. 덧붙여 ‘예술과 사회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술과 사회 이론이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룬다는 생각을 지지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역자는 옮긴이의 말에서 예술과 사회 이론을 ‘경합과 공조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정의하면서, 양자를 매개하는 것에서의 관건은 가치중립적인 사회과학의 방법과 가치 평가 및 가치 긍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인문학의 실천을 매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부연하였다.

이 책은 예술과 관계하는 사회학적 연구의 여러 가지 논점들을 기저에 두고 제1장 다양한 개념 구상과 접근 방식, 제2장 미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 제3장 생산과 사회경제구조, 제4장 소비와 미적 자율성, 제5장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제6장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제7장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이후 등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플라톤(Plato)의 미론(美論)에 의거한 ‘아름다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미메시스론(Theory of Mimesis)과 연결되는 ‘자연의 모방’, 알렉산더 바움가르텐(Alexander Baumgarten)에 의해 출현된 미학(美學)으로부터 파생된 ‘미적 경험’ 등 서구의 예술사상에서 제기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형이상학적 개념 구상들에서 비롯하여 이들 개념에 대한 모던한 이해방식을 설명한다. 이어서 형이상학적 개념 구상과는 대조적인 관점에서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인문학적인 미술사, 맑스주의의 예술의 사회사, 문화연구, 문화유물론, 포스트모더니즘, 분석철학의 예술 제도론, 인류학적 예술 연구, 그리고 현행 예술 제도의 경험적 사회학에 관한 논의가 포함된다.

제2장은 예술에서의 가치(value)와 가치 부여(valuation)의 문제에 대한 함의를 미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먼저 예술들의 사회학에 왜 가치의 문제가 존재하는지, 왜 가치중립적인 학문을 위해 그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예술의 가치에 대한 자유 인문주의적 개념 구상이 지닌 일련의 문제들을 기술하였다. 그 다음 정치 참여적인 비평의 세 가지 입장으로 사회주의 비평, 페미니즘 비평, 탈식민주의 비평에서 제기된 예술의 가치에 대해 논변하였다. 이와 같은 논변의 중심에는 계급, 젠더, 인종이라는 세 가지 불평등 차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4장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미적 평가의 상대주의가 갖는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인 고려 사항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경험사회학적 예술 연구에 있어 사회적 예술 생산의 관점을 적용한다. 예술 작품에 사회 계급 관계가 반영된다고 보는 고전적 맑스주의(Marxism) 설명이 지닌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어서 사회구조와 예술형식 사이의 진화론적인 상응 관계를 파악하는 非맑스주의로서 피티림 소로킨(Pitirim Sorokin), 아르놀트 하우스(Arnold Hauser), 로버트 윗킨(Robert Witkin)의 이론들도 고찰한다. 끝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모던 초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에서의 예술 후원, 예술 시장, 예술 기금과 관련하여 예술의 사회경제적 결정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은 경험사회학적 예술 연구에 있어 사회적 예술 수용 또는 소비의 관점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는 데에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철학적 미학에 대한 사회학적 비평과 미적 감성의 관념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의 약호들로서 여가, 품격, 미적 자율성이라는 신생 문화의 문제들을 상론한다. 이어서 칸트 미학에 대한 당대의 매우 중요한 사회학적 비판이라 할 수 있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예술과 문화 자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및 갤러리 방문에 관한 연구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들이 진척시킨 몇몇 방법론적인 비평들에 의거하여 논지가 전개된다. 끝으로 미적 타당성 대 취미의 사회학에 대한 논변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사회 내의 예술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몇몇 사회 이론가들의 논의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 대한 규범적인 다양한 쟁점을 거론한다. 우선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사이의 양가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맑스주의 사회 이론의 매스 컬처 비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요한 실러(Johann Schiller), 프리드리히 셸링(Friedrich Schelling),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게오르크 헤겔(Georg Hegel) 등 독일관념론 철학자들이 성찰한 예술에서의 자유, 자연, 진리 관념의 의의를 찾는다. 그리고 칼 맑스(Karl Marx)를 비롯하여 맑스 변증법의 프리즘을 통해 예술에서 진리와 허상의 변증법을 발전시킨 20세기의 비판이론가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와 죄르지 루카치(György Lukács)의 통찰 방식을 탐구한다. 19세기 유럽 고급문화의 예술, 신화, 종교에 대한 언급에 이어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와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미학적 철학,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거론한 승화와 문명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한다.

제6장은 예술에 대한 20세기의 사회 이론에서 모더니스트(modernist)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인물들의 저술을 토대로 모더니티, 모더니즘, 모던화 개념과 함께 다루어지는 방식을 검토한다. 그에 앞서 19세기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성찰과 그 이후의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있다. 보다 심도 깊은 접근으로 막스 베버(Max Weber)의 합리화와 미적 영역,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의 돈·스타일·사회성,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애도와 메시아적인 것,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의 물리적 현실의 구제,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프랑크푸르트학파에 관련된 그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제7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예술의 사회학적 이해에 있어 어떠한 적실성(適實性)이 있는지 가늠하기 위하여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이르기까지 1945년 이후 독일 미학 사상, 마르키 드 사드(Marquis de Sade) 이후의 문학적 사유에 초점을 맞춘 1945년 이후 프랑스 미학 사상들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기원을 추적한다. 환기되는 담론은 근래의 사회학과 미학 이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자율성’과 ‘성찰성’ 차원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현대사회에서 논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글로벌화와 예술의 전망에 대해 가늠해본다.

그렇다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형이상학적 예술 개념과 사회학적 예술 개념은 대조적인 개념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술의 사회학적 접근 방식은 형이상학적 접근 방식에 비해 대체로 물질적 선행조건, 역사 흐름, 예술의 담론·관행·제도의 문화적 다양성을 한결 더 강하게 감지하고 있음을 상론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점에서 두 가지 예술 개념은 단지 역사적으로 다른 사고 체계에서 나온 다른 개념 구상일 뿐, 결코 형이상학적 개념 구상이 사회학적 개념 구상보다 현대의 예술 이해와의 관련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한다.

둘째,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단지 의미론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며 실생활에서의 가치 부여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과학은 어느 정도 예술을 가치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이는 예술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범주의 문화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이 통상 정치학과 사회학의 문제로부터 미적 가치 평가를 고립시켜왔던 자유 인문주의 예술학에 도전하였고 문화적 가치 부여에서 권력과 배제의 논리에 대한 사회적 사실을 지적하였음을 통해 두 가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 하나는 예술들의 사회학의 측면에서 사회적 정치적 고찰과 미적 평가의 실천을 매개하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하나로 미적 평가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지지받을 수 있는 특정 대상들에 대한 지각적 경험의 특성을 간취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술의 사회경제적 결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발생된 난점들은 베버가 일컬은 대로 문화 현상의 역사적 개별성과 진정한 해석적인 적합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개별 사례별로 타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술과 사회구조를 비교하는 역사적 일반화의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사적 후원 체제, 공개 시장의 예술품 자유 판매 체제, 국가 예술 보조금과 예술 자선사업 활동 및 상업적 스폰서십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예술가들의 물질적 생계 수단의 원천을 집중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미적 자율성 관념은 18세기 이후 모던한 서구 문화의 산물로서 사회 안에서 계층화된 집단별 예술 소비의 차이 나는 여러 사회적 기능—오락 기능, 지위 표시 기능, 집단 아비투스 구별—을 주시한 관찰에 의해 부인된다. 또한 사회학적 분석은 문화생산의 ‘고상한’ 범주와 ‘저급한’ 범주와 같은 상이한 범주들의 측면에서 소비 습관에 대한 민주적인 동등한 존중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의미한다. 상이한 계급과 집단은 문화상품 소비에 있어서도 상이한 습관을 나타내는데, 상호 간 이들 문화상품을 규범적으로 더 중시할 만하거나 덜 중시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판이론가들은 예술 작품의 미적 내용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사이의 양가적인 상호 관계의 견지에서 해석하였다. 그들은 모던한 예술의 유토피아적인 내용이 어떻게 망상에 불과한 구성물로 변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던한 예술이 사회 진화의 인지적이고 제도적인 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정을 거스르고자 하는 양상을 설명한다. 비판이론가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예술이 20세기 ‘매스 컬처’와 유사한 기분 전환 및 신비화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여섯째, 모더니스트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명의 사상가들 모두 보들레르의 시에서 그리고 여러 모던한 예술가 및 작가에게서 환기된 시간, 도시 생활, 미적인 구제라는 주제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율적으로 세분화된 사회 영역들 사이의 급격한 가치 충돌을 확인시킨 베버, 사회관계의 형식화와 심미화에서 나타난 보다 복잡한 구조를 관찰해 낸 짐멜의 경우 모던한 미적 의식의 합리화 및 세속화 과정을 이야기하며 현대 문화의 운명에 대해 비극적 결론을 끌어낸다. 한편 기계화된 생산과 대량소비의 세계에서 희망의 계기를 찾고자 한 벤야민과 크라카우어, 도구적 이성 아래 관리되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사회 계몽의 전망에 대해 냉담한 아도르노의 경우 베버와 짐멜에 비해 좀 더 강령(綱領)적인 비전, 즉 예술이 사회의 혁명적인 자의의식에 기여한다는 비전에 전념한다.

일곱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를 의문시하는 태도를 명료화하는 20세기 후반에 출현하였으며, 모더니즘의 원리인 양식적 일관성을 외면하고 양식적 절충주의에 입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 이후의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조건의 규범적인 주장으로서 지지되지는 못하였으며, 모더니티 자체 내에서 더 나아가 성찰성의 차원으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이 책의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미녀’에 자본주의적 글로벌화를 ‘야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적 글로벌화는 상업의 예술 기금 개입, 예술에 관여하는 뉴미디어, 문화분야와 경제분야의 탈분화 과정, 그리고 예술적 항의의 본성과 반항 등 문화적·미적 가치를 사유하는 방식의 절박함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즈음엔 『예술과 사회 이론』의 부제인 ‘사회학적 미학의 길잡이’라는 글귀가 뇌리를 스쳐갔다.

사회학적 미학은 미학과 사회학의 ‘경합’을 통한 ‘공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미학에 도전하는 사회학, 사회학에 대항하는 예술, 예술에 부응하는 미학의 복합적인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지적 실천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p.404).

필자에게 이 책은 예술과 사회 이론, 미학과 사회학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책 속에 담긴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서의 풍부한 소재들은 끊임없이 지적인 자극제가 되어 설렘을 안겨주기도 한다. 특히 사회학, 예술사회학, 문화연구, 예술사, 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읽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